지역 中企 부도어음 대출 급증

건설업 붕괴 여파 … 올 상반기 8억 작년치 웃돌아

부도기업 연관업체의 연쇄 도산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공제기금 부도어음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

남양건설·금광기업 등 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의 법정관리 신청 등 경영난이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거래 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해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할 때 부도어음을 받아 대출해주는 부도어음대출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5건, 6억5200만원이 지원됐다.

특히 지난 6월 부도어음대출 신청이 예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4건이 접수돼 1건은 대출됐고 3건(3억원 가량)은 심사 중이다. 이들 3곳이 대출되면 상반기 중 9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1년 동안 11건 7억3800만원, 2009년 12건 7억4800만원의 부도어음대출이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올 상반기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대출에 사용된 부도어음은 대부분 건설사와 자재납품 업체들 것으로, 남양건설·금광기업·새한철강 등 지역 대표 건설 관련 업체들이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부도어음이 급증,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부도어음대출은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공제기금으로 대출해 주는 제도"라며 "최근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역 건설업의 붕괴가 원인이다"고 말했다.

부도어음대출은 중소기업 공제기금 사업 중 하나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어음·수표의 현금화가 지연될 때 '어음수표대출'을, 단기운영자금 사정이 곤란할 때 '운영자금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들 대출은 사업자가 1년 이상 매달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7회 이상 기금을 납입하면 담보없이 신용도에 따라 그동안 납입금액의 최대 10배까지 최저금리 연 5.0%로 자금을 지원한다.

공제기금은 4월 말 현재 정부출연금과 기금 가입자의 납입 부금액 등 총 5000여억원이 조성돼 있으며, 광주·전남 750곳을 비롯해 51만2650여개 중소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부도어음대출 = 중소기업 공제기금 사업 중 하나로, 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상대 거래자의 부도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할 때 부도어음을 근거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기아 모닝 특별할인 기아자동차는 모닝의 100만대 판매 돌파를 기념해 기아차 신차 출고 이력을 가진 고객과 그 가족이 7월 중 차량을 구입할 경우 특별 할인해주는 '기아 패밀리 이벤트'를 실시한다 〈기아차 제공〉

지역 기업 5일간 '여름휴가'

기아차·삼상광주전자 등 일정 확정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주요 기업들이 여름휴가 일정을 확정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전체 직원들은 오는 8월2일부터 6일까지 여름 휴가를 떠난다. 앞뒤 공휴일을 합하면 최장 9일간 광주공장 문을 닫는다. 기아차는 직원들이 뜻깊은 휴가를 보내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휴가비 30만원도 지원한다.

삼성광주전자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일 동안 공장을 세운다. 다만 여름 성수기를 맞은 에어컨 분야는 1~2주 뒤로 여름휴가 기간을 늦출 예정이다. 삼성광주전자는 연봉제여서 별도의 휴가비는 없지만 상반기 상여금을 7월 지급해 측면 지원할 방침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 광주공장 직원들도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휴가가 주어진다. 공휴일 4일을 합하면 9일간의 장기 휴가다.

목포 현대삼호중공업도 같은 기간에 쉰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일정액의 휴가비를 지급하고 휴양소도 운영한다. 일요일에도 공장이 가동되는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은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공장 문을 닫고 전체 직원이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확실한 재충전을 위해 여름 휴가를 포함한 2주간의 '리프레시 휴가'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경우 인력의 한계로 인해 근무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4시간 고로를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휴가기간을 잡지 않고 개인 편의에 맞춰 여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해양조는 개별적으로 휴가를 사용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노사 '氣싸움' 2라운드

使측 타임오프 특별교섭 요구에 勞측 대규모 집회 맞서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한도)를 둘러싼 기아자동차 노사의 기(氣)싸움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상견례조차 거부하며 타임오프제 논의를 배척해왔던 사측이 타임오프제 관련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이번엔 노조가 거부, 무산됐다.

4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서영종 사장을 비롯한 사측 교섭위원 9명은 지난 2일 소하리공장에서 특별단체교섭을 위해 노조를 기다렸지만 노조가 끝내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사측은 지난달 29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타임오프제 시행을 전제로 구체안을 협의하자며 특별단체교섭을 제안했다. 이 문제가 종결되는 즉시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임단협을 진행하자고 덧붙였다.

기아차 관계자는 "특별단체교섭 요청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행정지도를 존중하고, 올해 임단협이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로 인해 파행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측은 그동안 노조의 전임자 급여 지급 요구에 대해 불법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교섭 자체를 거부해 왔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상견례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지난달 24일 행정지도를 통해 관련 법을 준수해 노사가 성실히 교섭하라고 권고했다. 사측은 이같은 중노위 결정에 따라 특별교섭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투쟁을 불법으로 몰기 위한 술수"라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노조 집행부는 2일 화성공장에서 확대간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5일에는 소하리공장에서, 7일에는 광주공장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측은 타임오프제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먼저 논의한 뒤 임단협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며, 노조 측은 전임자 수 유지와 임금 지급 등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안을 포함한 임단협을 함께 진행하자며 맞선 상황이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 1일 타임오프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 근거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 204명을 무급휴직 처리했다. 또 조합원 교육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근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수해지역 차량 특별점검서비스

기아차 10월말까지

현대·기아차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오는 10월말까지 여름철 수해지역 차량에 대해 특별점검 서비스에 들어간다.

현대·기아차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해지역에 긴급 지원단을 투입하고, 전국 직영서비스센터와 서비스협력사(현대차 1500여개, 기아차 800여개)를 활용해 재해지역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현대·기아차는 이 기간 동안 피해 차량의 엔진·변속기·점화장치·전자장치 등에 대해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또 재난지역 대상이 아니어도 수해지역 고객이 직영서비스센터와 서비스 협력사에서 차량 수리를 받으면 수리비의 50%까지 할인해준다. /박정욱기자 jwpark@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내가 더 친환경" 경유·LPG업계 신경전

'클린 디젤차'가 차세대 친환경 차종으로 떠오르면서 디젤유(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업계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수송용 연료와 자동차 시장의 대세가 친환경을 중시하는 쪽으로 흘러 오염물질 배출 정도는 시장 확대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경유업계는 경유가 클린디젤 엔진 기술이 개발되고 품질까지 개량되면서 청정연료로 통하는 LPG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오히려 적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PG 업계는 클린 디젤 차량이 옛 경유차보다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긴 하지만 여전히 LPG 차량보다는 환경적 측면에선 뒤떨어진다고 반박한다. 특히 LPG 차에선 거의 나오지 않는 질소산화물은 경유차가 태생적으로 안은 약점이고, LPG 차에선 없는 미세먼지(PM10)나 초미세먼지(PM2.5) 역시 클린 디젤차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는 게 LPG 업계의 주장이다. /연합뉴스

'워크아웃' 25개사 구조조정 돌입

채권단, 2개사는 개시 결정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추진 대상에 선정된 기업들이 본격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C등급(부실징후기업)을 받은 총 38개 업체 중에서 벽산건설 등 25곳이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해 세광중공업과 중앙건설 등 2곳에 대해 채권단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3개사는 채권단과의 이견으로 워크아웃 신청 등에 진통을 겪고 있으며, 나머지 1곳은 검찰 수사 등으로 워크아웃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채권단은 워크아웃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잇달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를 개최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선다.

C등급을 받은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울산지역 중견 조선사인 세광중공업에 대해 워크아웃이 결정됐으며, 중앙건설 채권단도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396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8	20	31	34	40	45	30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5,296,622,400	2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1,927,671	34
3	5개 숫자 일치	1,468,836	1,202
4	4개 숫자 일치	57,336	61,586
5	3개 숫자 일치	5,000	1,015,292

▼ 코스피지수 1,671.82 (-58.02)
▼ 코스닥지수 485.69 (-12.43)
▼ 금리 (국고채 3년) 3.82% (-0.08)
▲ 원·달러 환율 1,228.50원 (+13.10)
※수치는 2일 기준 1주전과 비교